

## 特許爭訟에 柔軟性禁物

— 30萬弗 메라민事件이 敎訓 —

國際特許紛爭事件 가운데 損害賠償條로 18年前에 日貨로 1億圓이라고 하면 그 동안의 貨幣價值變動率로 보아 적은 訟事는 期必 아니며 사건의 主題는 메라민의 製造法에 관한 美·日間企業爭訟이다.

메라민은 食器類와 册床, 家具의 接着劑, 塗料, 織物의 加工劑로 使用되는 樹脂의 原料이다. 또 와니스에도 사용되는 耐水性, 耐藥品性, 耐熱性으로서 優秀한 物質이며 從來에는 石灰窒素에서 採取되는 사이아미드라는 물질들을 원료로하여 제조되었다.

한편 日本의 日産化學工業(株)이 尿素를 원료로하여 메라민을 제조하는 技術을 1957년부터 研究를 시작 7年後인 1964년에 이르러 製造販賣段階에 이르렀다.

이를 確認한 美國의 아메리칸 사이아나미드會社는 日産化學의 메라민製造方法이 自社가 日本에 登錄한 메라민製造技術의 發明特許에 抵觸된 다하여 製造販賣中止假處分申請을 富山地方法院에 提起하였으나 成事하지 못했다.

日産化學도 表面上은 自社獨自開發技術이라하여 1964年 5월부터 66년 7월 사이에 時價 764餘萬圓어치의 메라민 5,513t을 제조하였다.

이 事實을 再確認한 美사이아나미드는 日産化學을 地相對로 損害賠償과 不當利得 1億圓의 返還訴를 富山法에 1966년 3월 제기하였다. 70년 9월까지 4年半에 걸친 本訴以外에도 사이아나미드가 日産化學에 自社特許權의 實在에 대하여 警告한 62년 10월부터를 따지면 同紛爭은 8년이 걸렸고 結果는 日産化學의 苦杯였다.

經緯인즉 사이아나미드는 日産化學에 대하여 尿素에서 메라민을 生成하는 技術을 개발·연구하여 企業化할 計劃이 있는 듯하나 그 方法에 대해서는 當社가 특허를 갖고 있으므로 개발에 成功하여도 實施할 수 없다』고 注意를 喚起하였다.

이 주의에 대하여 日産化學은 『忠告는 고마우나 當社가 개발한 技術은 貴社의 發明特許와는 別異의 것이라』고 反論하였다.

그러나 日産化學은 사이아나미드에 대하여 경고에 대한 回信과 아울러 사이아나미드가 保有하는 특허의 實施許諾意思를 打診하였다. 이 實施許諾交涉이 此後의 분쟁에서 弱點으로 虛를 찢리게 되었다. 즉 『被告(日産化學)가 侵害行爲로서 違法性을 認識하고 있었음은 피고가 自社技術에 의한 製法을 開始하기에 앞서 原告(사이아나미드)에 대하여 本件特許의 실시허락을 몇차례 要請한 것으로 비추어도 明白하다고 指摘할 點이다.

이에 맞서 日産化學도 『萬一 爭訟의 發生으로서 顧客이 動搖함을 念慮하여 自社의 新技術開始를 피하는 등의 事情을 考慮하는 한편 技術料에 妥當성이 있으면 相對의 特許權을 買受하려는 意圖였다』고 對應하였다.

그러나 特許紛爭에서 柔軟性도 手段이 될 경우가 없지 않으나 굵히고 매드는 듯한 印象은 慎重해야 한다는 것이 世論이다. 이러한 유연성이 敗訴의 原因은 아니겠으나 結果는 日産化學이 사이아나미드의 特許權侵害로 落着되었다.

사이아나미드의 發明특허는 尿素를 出發物質로하여 암모니아의 存在下에 메라민을 제조한다는 것이다. 암모니아는 高溫下에서의 메라민의 分解를 妨害하는 것이나 本件特許의 경우는 이 암모니아의 존재라는 것이 重要한 것이 아니며 암모니아에 의해 메라민의 分解를 阻止하는 技術이 25年前에 피슈特許로써 明白히 되었으므로 출발물질로서 尿素를 사용한다는 것이 焦點이 된 것이다.

敗訴結果는 1億圓의 손해배상액이 30,465,920이므로 줄었으며 이때의 換率은 1弗當360圓이이었으므로 84,600弗事件이 된 셈이다.